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청소년 기획단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

일시 | 2019.5.24(금) 15:00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406호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Gongneung Youth Center For Culture & Information

마음에 열려있는
따뜻한 도시 **완주**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청소년 기획단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

일시 | 2019.5.24(금) 15:00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406호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Gongneung Youth Center For Culture & Information

다함께 열어가는
은돔도시 **완주**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Contents



■ 토크콘서트 일정표	1
▶ (기조강연) 마을에서 작은 변화를 상상하고, 희망을 노래하자	3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센터장)	
■ 1부 청소년기획단 Youth Voice	13
사회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내 별명은 공릉동 청소년 이장	15
정진용 (이장(二長:) 공릉중 학생회장,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 시작된 변화 만렙을 향해서	18
안수현 (시작된변화 활동청소년 아띠넷)	
▶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23
전미영 (중원청소년수련관 실무자)	
▶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30
김정현 (중원청소년수련관 대학생기획단[베리타스])	
▶ 아동의 출산부터 시민이 되기까지	33
홍문기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박사)	
▶ 아동친화도시 참여정책 : 완주군청소년의회	36
조하나 (고산고등학교)	
▶ 아동친화도시 참여정책 : 완주군청소년의회	38
송여진 (한별고등학교)	
■ 2부 공감	41
사회:홍성미 (청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팀장)	
■ 부록	47
▶ 공터에는 공룡들이 산다 (마을 속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청소년 기획단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

I 사업목표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 연계기능 강화
-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기반 마련

II 추진전략 및 방침

- 다양한 지역별 청소년 기획단 활동 내용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
-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의견을 청소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III 세부 추진 계획

- 주최·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 일 정 : 2019년 5월 24일(금) 15:00-17:00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406호
- 대상 및 참석인원 : 70명 내외

○ 세부 내용

시간	소요(분)	담당	내용	비고
14:40~15:00	20 "	담당자	접수 및 등록	
15:00~15:15	15 "	기조강연	기조강연 : 이 승 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센터장)	
15:15~15:45	30 "	각 발표자	1부 + 청소년기획단 YOUTH VOICE 사회 :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진용 (공릉중학교 3학년) 안수현 (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고등학교 1학년) 전미영 (중남청소년수련관 활동진흥팀 팀원) 김정현 (성결대학교 청소년학과 4학년) 홍문기 (완주군청 주무관) 조하나 (고산고등학교 1학년) 송여진 (한별고등학교 1학년)	(6명, 각 5분씩 발표)
15:45~16:05	20 "	휴식		
16:05~16:55	50 "		2부 + 공감 사회 : 홍 성 미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팀장) ◎ 사연신청자를 초대하고 고민을 같이 해결해본다.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 ◎ 가장 공감을 많이 얻은 사례(사람)-동의를 껴맞을 들고 투표한다. 게스트 : 위 발표자 5명, 사연 최고 득점자 6명 1. 최대 득표 사연신청자를 초대하고 고민을 같이 해결해본다. 2. 게스트, 패널들이 의견을 주기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 3. 한 사례당 8분 정도 소요할 수 있다. 4. 4~5명 정도의 청소년을 앞으로 초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5. 가장 공감을 많이 얻은 사례(사람)-동의를 껴맞을 든다-발표해준 분들에게 소정의 문화상품권 지급	
16:55~17:00	05 "	사회자	평가 및 소감 나눔 / 정리, 마무리	



마을에서 작은 변화를 상상하고, 희망을 노래하자

무어라도 해보자!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센터장 이승훈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할까요?

청소년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할까요? 미세먼지 해결될까요? 취업문제 개선될까요? 입시경쟁 해소될까요? 한반도에 평화가 올까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 멈출 수 있을까요? 갈등과 대결의 정치 바뀔까요? 차별과 혐오 개선될까요? 지속 가능할까요?

제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낙관을 지닌 사람이 작은 변화를 위해 행동합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만 바라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탄과 절망뿐입니다. 절대로 모든 면에서 비관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은 세상을 비판의 눈으로 보지만, 변화를 상상하고, 희망을 노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환의 시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라고 합니다. 손바닥 위에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내 손바닥 위에 담겨있는 듯합니다. 이 빠르고 급격한 변화를 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의 속도는 엄청나고, 소품종 다량생산의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표준화에서 다양성

의 시대로, 독립된 전문성 보다 경계를 넘는 융합과 초연결시대로, 경쟁보다는 협력의 시대로 우리 삶의 주요한 키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교육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잘 몰라

우리는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정답이 무어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고요?

그런데 사실 어른들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더 모를 겁니다. 어른들이 살아왔던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경쟁, 성장, 확장의 시대를 살아 온 걸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도 줄고, 경제 성장도 멈춰가고 있잖아요. 어른들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를 비롯한 어른들은 이런 상황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 불안과 초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답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 센터 앞에 “나답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펼침막을 걸어두었습니다.

이 펼침막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나다운 사람이 멋있기는 하지만 내가 나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또 중년의 저 역시 여전히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좀 애매모호해도 되지 않을까요?

중심에서 하나의 정답이 제시되던 시대에 우리는 모두 정답 찾기에 골몰했고, 교육은 그 길을 잘 안내해주었습니다. 정답을 좇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정답을 알지 못 합니다. 중심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니 어쩌면 모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 세대의 교육은 규격화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이제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허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중심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콤플렉스 덩어리로, 평생을 주눅 들어 살 필요는 전혀 없는 세상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가 주인 되어야 해결됩니다.

청소년을 돕겠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관, 시스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 전문가들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도움이 참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가끔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도 같습니다. 돕겠다는 사람과 프로그램은 계속 늘어나는데 청소년 인구는 줄어듭니다. 청소년의 시간을 어른들이 지배해버립니다. 청소년이 생산자로, 주인으로, 시민으로 살 기회는 줄어들고, 대상자로, 소비자로서의 역할만 주어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도움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
우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환대의 손잡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대는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는 장, 마당으로 사람들을 초대 합니다. 환대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지홍아 숨바꼭질하자!” 친구의 부름에 우리는 설레 입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동네 공터로, 좁은 골목으로 나를 초대합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놀이 기획자가 되고, 문화 생산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시민이 됩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환대의 장에서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는 서로를 환대로 맞이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경쟁자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대상자로, 피씨방과 편의점, 앱스토어에서 소비자로서만 살기 십상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고, 인사하고, 이름을 묻고, 악수하며, 서로 환대합시다.

●
청소년은 마을과 일상에서 주인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노원구 공릉동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된 변화라는 이름으로 동네 골목을 누비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마을 공공기관에 전기 코드를 뽑으러 다니고, 굴다리에 벽화를 그리고, 놀이터에 쓰인 낙서를 지우고, 자전거 도로의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길고양이 집을 만들어 선물하고, 빈 땅에 씨앗을 뿌리고 봉숭아꽃을 피우는 등 자칫 잘 못 보면 참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여섯 동아리였던 시작된 변화 활동이 지금은 노원구 전역에 70개 이상의 동아리에 400여명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주변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을을 바꾸고도 있지만, 작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 만의 빛깔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작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

각하게 되었다”고 말 합니다. 알파고가 대체할 수 없는 지적호기심, 협동심, 갈등조정능력, 자존감, 독립심... 마음이 자랐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혼자서 용기 내는 일 참 어렵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 말씀 드리면 “좋은 일이지만 이 다음에 대학가서 하자”, “나중에 힘 있는 사람 되어서 하자” 라고 하실 게 뻔합니다. 부모 된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판, 비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야기가 통하는 학교 선생님, 청소년센터의 지도자, 어른들과 손잡아야 합니다. 학교, 청소년시설, 도서관, 주민센터,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에 도와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또 다른 시민들을 초대하고, 연결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서울 변두리 공릉동까지 찾아와서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센터와 마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매우 감동적이지만 몇몇이 이렇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하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작은 행동으로 되돌리기에는 우리는 어쩌면 너무 멀리와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지령이 ‘카로’ 라는 동화책에 나온 짧은 글이 제 절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수많은 작은 마을에서
수없이 작은 일을 한다면
세상은 변할 것이다.



우리 무어라도 해봐요.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할까요? 미세먼지 해결될까요? 취업문제 개선될까요? 입시경쟁 해소될까요? 한반도에 평화가 올까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 멈출 수 있을까

요? 갈등과 대결의 정치 바뀔까요? 차별과 혐오 개선될까요? 지속 가능할까요?

우리는 모두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기계와는 다른 거죠.

확률이 낮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무어라도 해봅시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MEMO

Lined area for writing the memo.



1부

청소년기획단 YOUTH VOICE

/

사회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 별명은 공릉동 청소년 이장



정진용_이장(二長:) 공릉중 학생회장,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린나래에 대하여

그린나래는 청소년들과 함께 날아오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서 이에 따라 다시 찾아오고 싶은 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더 나은 센터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센터의 청소년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린나래에 들어온 계기

저는 센터를 어렸을 적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다가 2016년에 그린나래라는 단체의 모집 포스터를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여 면접을 통해 뽑혀서 1년간의 다양한 활동 경험 이후 지금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린나래의 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린나래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센터의 불편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나래의 영향

1. 우리가 만드는 변화

저는 그린나래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과 마을주민 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센터 내의 불편한 점을 찾아가는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이전에는 그저 지나가던 센터의 놀이, 안전, 학습시설 등에 관한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고 실제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고 나 스스로가 이러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현재 학생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2. 내 의견보다 우리의 의견

또한 그린나래에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친구들과 함께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혼자서 하지 않고 다른 이와 협력하도록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고 함께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협의점을 찾아가는 타협의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릉동 어린이축제인 와글와글을 위해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더욱 발전된 생각이 나오도록 오랜 시간 회의를 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이야기를 하나의 좋은 의견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늘어나는 마을

그리고 다른 청소년 동아리 분들이나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들과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나 센터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까지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이라는 개념이 학교와 학원, 친구 정도의 범위에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ex.든든한 이웃, 꽃다방, 마을과 마디 등)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린나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릉동의 철길이나 근린공원 등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우리 마을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마을에서 친구 이외에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릉동에서 축제를 할 때면, 마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그린나래도 참여하기 때문에, 축제를 돌아다닐 때 아는 분들이 보이면 반갑고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다

제가 처음 그린나래를 들어와 다양한 활동을 준비 및 진행할 때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행사를 진행해야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처음 해보는 활동들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활동이 올바른 것일까 하는 불신과 혹시라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는 걱정 같은 게 있었습니다. 또, 현재 그린나래의 위원장으로서도 내가 친구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있기도 하고 활동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혹시라도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저 자신의 스펙만을 위해 함께 하려는 친구들이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그린나래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걱정 없이 있으려면 많은 것을 해보는 게 좋은 데 내가 여러 가지를 하려하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받아 오히려 그만두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도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1. 틈이 필요하다

제가 이러한 활동들로 마을을 더욱 더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하나의 주제에 대한 청소년과 어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이러한 생각들은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문제들을 알게 해주는 등,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더 많은 청소년 자신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협동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나를 더 알아가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업 때문에 너무 바쁘거나 이러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이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관심이 필요하다.

가끔 누군가 저희에게 이런 활동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 청소년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진행하는 활동에 대한 지역적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을 것이고 진행하는 청소년들도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에서 힘이 나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예산이 필요하다.

그린나래에서 활동을 하며 작년에 참여했던 꿈마을청소년응원프로젝트활동에서 받았던 청소년 지원금은 그린나래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났기에, 그린나래에서 하고 싶었던 활동을 더욱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에 제약이 적은 예산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얻게 된다면, 청소년들이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된 변화 만렙을 향해서



안수현_시작된변화 활동청소년 아띠넷

팀명은 '양아치'?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중학생이 되면 봉사 시간을 채워야하는데, 지하철봉사나 캠페인 같은 봉사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봉사를 같이 해볼래?'라고 하였다. 친구는 자기 언니가 시변을 하는데 뭘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재밌어 보이고, 맨날 봉사비로 간식도 먹고,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봉사해야하는데 우리들끼리 재밌게 하자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여서 같이 하자고 하였다.

시변은 4명 이상부터 팀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둘이서 열심히 영입을 하여 4명을 모았다. 시변 신청서를 쓰려고 하는데, 팀명을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4명이니 넷이 들어간 '인터넷?'을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직 중1이고 이제 막 시작 했는데 조금은 세계 보여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있어서 '양아치'가 나왔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의미부여를 하였다. 양아치의 뜻은 '양띠인 아이들의 chemistry'였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양아치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 하다가 '친구를 뜻하는 순우리말인 아띠'와 '네 명을 뜻하는 넷'을 합쳐 '아띠넷'이 되었다! 팀명은 팀의 얼굴이 되므로 그 때 양아치를 막아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

우리 동네의 문제점은 환경?

처음 활동할 때 '무슨 주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동네의 문제점이 궁금해졌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리 마을 공릉

동의 문제점은?’이라는 종이를 붙여서 일주일 간 의견을 받아보았다. 거기에는 ‘학교 가기 싫어요.’, ‘우리 동네에 아이돌이 왔으면 좋겠어요.’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공사장 소음’이나 ‘길거리가 넘 더럽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의견들을 본 우리는 쓰레기에 대한 주제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쓰레기도 재활용, 업사이클링, 분리수거, 버리지 않기 등 활동 범위가 너무 컸다. 그러다 우리는 청소년이니 우리의 시선에서 많이 보이는 쓰레기부터 들여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친구가 ‘우리 반에 안 쓰는 연필이 많아!’라고 해서, 연필을 모아 5월 와글와글 축제에서 연필 재활용을 하려고 하였다. 우리는 연필을 일주일 간 모았는데, 연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당황했다. 친구들은 모두 샤프를 썼다! 와글와글 축제는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벼룩시장에 참여하였고, 뽑기 게임도 같이 진행했다. 와글와글 축제에서 대박이 나서 우리들의 사기가 충전되었다.

와글와글 축제 이후에 우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더 찾아보다가,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재활용이 이면지 사용이라면, 업사이클링은 종이를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었다. 업사이클링은 다방면으로 재활용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나니, 약간 맥이 풀렸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그래도 나는 학교가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보는 것이 좋았고, 주제도 정했으니까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막 불타올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을 찾다가, 상자스피커를 보게 되었다. 준비물이 적고, 만드는 것도 쉬워보여서, 바로 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박스를 자르는 게 어려웠고, 우리가 깔끔하게 박스를 자르지 못해서 안 예쁜 스피커가 되었다. 그로인해 조금 시무룩해져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스피커를 보시고는 그다지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시무룩해진 우리에게 선생님은 ‘남이 만든 것을 한 번 보면 어때?’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명동의 업사이클링 매장을 갔다. 거기에는 이것저것 있었지만, 너무 다 고퀄리티였다. 그래도 소파 위에 있는 쿠션은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는 갑자기 사기가 충전되었다. 각자 집에서 준비물을 하나씩 가져와서 쿠션을 만들었다. 쿠션을 한 번만 들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고 공유하고 싶었다. 영상을 찍고, 직접 편집해서 올렸다!

이렇게 1년차는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도전

하는 시간이었다. 주민들에 의견 묻기,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배우기, 관련 장소 방문하기, 축제에 나가보기 등 다양한 것을 시도해봤다.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조금 지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덕질에서 시작 된 주제

1년이 막 마무리 될 때 쯤, 업사이클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가지만 크게 다가오지 않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주제인지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때,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모해 팀을 만나게 되었다. 모해 팀을 보고나서 그 팀은 어떤 주제를 잡았는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찾아보았다. 모해 팀은 자기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모해 팀만의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저거다!’ 싶어서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문제점을 다루자!’고 하였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불편함을 적어서 나열을 해봤다. 여러 사회적 문제들, 친구나 어른들, 아이들의 고민, 국정교과서, 페미니즘, 욕 등등이 있었다. 우리는 나열된 여러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때, 친구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여혐 가사를 썼는데 나는 그들의 팬이기에 여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방어해주기보다 그 가사에 불편함을 더 느꼈다고 얘기하였다. 노래가사 외에도 교복 허리라인, 여성 혐오적인 욕 등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는 얘기를 나누고, 어떤 주제로 활동할지 투표를 하였는데 페미니즘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활동 주제를 페미니즘으로 하게 되었다.

페미니즘이란 주제는 우리에게 아직 조금 어려웠고, 그냥 쉽게 다룰 수 있는 가벼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책이나 영화를 보고 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약 한 달 간 모여서도 책을 보고, 일상에서도 관련 책을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았고, 개념에 대한 것도 틀이 잡혔지만 조금 지쳤다. 그 때, 선생님께서 ‘아띠넷, 우리 이 책 읽고 같이 얘기해볼래?’, ‘선생님도 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 같아?’하고 권유해주셨다.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아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우리끼리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오래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의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달라져야 할 것들’이라는 집담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때,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조금의 자기반성이 있었다. 우리는 여태 우리끼리 공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좁은 시야에 있었는데, 집담회에 참여해서 시야가 탁 트이고 더 넓어진 느낌이었다.

2년차는 1년차와는 다르게 ‘나의 일상’에서 출발한 주제였다. 1년차 때는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2년차에는 나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에 일상에서도 더 주의 깊게 보았다. 그리고 1년차에는 관련 장소를 방문만 하였지만, 2년차에는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관련한 사람도 만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1년차와 2년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업사이클링은 내게 빙 둘러 오거나 직접적으로 오는 주제가 아니었다면, 페미니즘은 내가 겪거나 본 것이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얻는 깨달음이 컸다.

척하면 척!

작년에는 많이 배웠으니, 올해는 좀 알리는 활동을 해보려고 하였다. 어떤 식으로 알려야 할까 고민과 걱정을 잔뜩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선생님께서 ‘아띠넷, 우리 공유회를 열어보자!’고 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올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까?’는 생각이 들었다. 공유회를 하고는 싶었지만 겁이 났다.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옆에서 ‘잘 할 수 있을거야! 해보자!’고 하시면서 밀어붙이셨다. 우리는 많이 걱정스러웠고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계속 격려해주셔서 공유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공유회 순서는 아띠넷 소개, 공유회를 하게 된 계기 소개, 각자가 일상에서 크게 느끼는 차별, 영상 시청, 소감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노래 가사, 교복, SNS에서의 차별 등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잡고 각자 이야기를 준비했다. 홍보포스터에 ‘10대, 덕질, SNS, 학교, 욕, 교복’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을 주제로 잡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았다. 하지만 그만큼 긴장하고 떨려서 발표 전에 걱정이 쌓였다.

공유회에서 우리의 발표 시작 전에 자신의 성별로 인해 불편한 점을 익명으로 받아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를 할 때 너무 떨렸지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활동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감동이였다. 아띠넷의 발표가 끝난 후에, 성별로 인해 불편한 점에 대해 같이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규정이 여자한테만 엄격해요!’, ‘생리 조퇴가 눈치 보여요!’ 등 여러 의견을 같이 나누며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은 많지 않은데, 공유회를 통해 가질 수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었다. 공유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았지만 여성분들만 오셔서 아쉬웠다. 다음에 또 공유회를 하게 된다면 남성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남았다. 공유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열정이 불타오를 때 이번엔 공유회보다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다가가갈 수 있는 활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여름이 다가오니, 여름 하면 수박! 수박하면 화채! 그래서 화채를 주면서 페미니즘을 알리자고 생각했다. 작년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굿즈 욕심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뱃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뱃지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고, 가볍고,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금속뱃지를 만들고 싶었는데, 팀에 금손이 없어서 디자인을 각자 해보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핀버튼 뱃지로 깔끔하게 좋은 문구 하나만 있는 것이 금속뱃지보다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띠넷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걱정보다는 준비하는 게 재미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공유회를 준비하면서 문서작업을 했었는데, 수박화채를 만들면서 재료도 직접 사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까 생각하는 게 재밌었다. 화채를 통한 페미니즘 알리기는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적이었다! 우리의 사기가 완전 충전 되었고 불타올랐다.

그 때 꿈나르샤가 다가오고 있었고, 꿈나르샤에서는 남은 뱃지와 함께 다른 굿즈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스티커는 모두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티커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고 꿈나르샤 부스에서는 청소년과 아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책갈피 만들기과 함께 뱃지 나눠주기, 페미니즘 관련 퀴즈를 맞히거나 1,000원 이상 기부하면 스티커 드리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3년차는 그 전보다 팀원들이 눈빛만 봐도 통하는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누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잘 알았다. 그리고 이제는 아띠넷은 무엇이든 하면 다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2년차 꿈나르샤 부스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 하지만 3년차에는 상처를 받기보다 그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고 여겼다. 이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하게 되었다.

“수현아, 아띠넷은 올해도 시변 계속 하나요?”

내가 시작된변화를 계속 하는 이유는 주말마다 센터에 오는 게 습관이 되어, 가지 않으면 허전하다. 그리고 다른 봉사에 비해 확실히 내가 문제점을 찾고 스스로 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시작된변화는 청소년이 나만의 이야기를 갖는 것이다. 시작된변화에서 똑같은 주제를 잡아도 모두 다른 팀마다의 방식으로 활동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갖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시작된 변화가 아직 질리지 않는 이유 같다.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온통 (溫通: 따뜻한 마음으로 통하다)



전미영_중원청소년수련관 실무자

2017년에 성남시에서 발간된 성남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원 청소년 수련관이 자리 잡고 있는 중원구 주민들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및 이웃 간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중원구는 우범지대’라는 인식이 심각¹⁾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원구내 성남산업단지²⁾(이하 상대원 공단)가 넓게³⁾ 분포되어 있어 낮과 밤이 다른 우범지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등이 작용한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식을 하게 해 주었고 이 문제 인식을 시작으로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은 상대원 공단 이미지 개선 및 공단의 지역 네트워크로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원으로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크게 벼룩시장과 청소년 재능 나눔 공연 등 두 가지 테마로 SKN테크노 파크(상대원 공단 내) 야외 공연장에서 3회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꼭지 온통 벼룩시장 (벼룩시장 경제활동)은 아래와 같이 운영되었습니다.

◆ 목표

(1) 청소년 기초경제 교육 및 기업가 정신 함양

1) 2017년 제8회 성남시사회조사보고서 p.184, 213~215

2) 1974년 9월 7일에 성남공업단지가 준공되었으며 1996년 7월 19일 성남공업단지의 명칭이 성남산업단지로 변경 됨.

출처: 디지털성남문화대전(http://seongnam.grandculture.net/Contents?local=seongnam&dataType=01&contents_id=GC00100264)

3)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총면적 15km²로 중원구 총 면적 26.38km²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성남시 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snic.or.kr), 중원구청 홈페이지 (www.jungwongu.go.kr)

- (2) 청소년 주도력 및 공동체 의식 강화로 지속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
- (3) 지역주민들에게 공단 내 중소기업 홍보 활성화
- (4) 마을 변화 사업(꽃길 만들기)을 위한 자원 마련

◆ 운영

- (1) 공단의 지역 네트워크로의 합류를 위해 공단 내 기업에서 생산되었지만 스크래치나 기타 문제로 불량 처리된 물건들 기부 및 후원(기업은 사회공헌활동에 기여) 받아 마을변화활동에 참여
- (2) 청소년 벼룩시장 개최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

◆ 사전교육

- (1) 지역 내 경제 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 기초경제교육 진행



참고 사진 1. 청소년기초경제 교육 사진

참여한 청소년들의 머리를 쥐어 짜게 했던 기초경제 수업은 서울경제 2018.6.22.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참고 사진 2. 서울경제 기사 “어려운 환율·펀드도 게임으로 배우니 쉽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328617&sid1=001>)

◆ 사후활동

(1) 벼룩시장 수익금으로 마을변화사업 꽃길 만들기 시행

온통행복한마을 만들기 사후 활동으로는 상대원 공단 주변 꽃길 만들기를 시행했습니다.

3차 활동을 함께 해주신 상대원 공단 내 SKN테크노파크 입주자님과 함께 꽃을 심을 장소 선정 및 꽃길 만들기도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입주자님들께서 꽃길 만들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간식도 사주셨습니다.



① 상대원공단내 나무심기



② 꽃길만들기



③ 꽃길만들기를 마치고 단체사진

참고 사진 3. 상대원공단 꽃길만들기 사진

‘온통 벚룩시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 (1) 상대원 공단의 어두운 이미지 제거로 긍정적인 공단 이미지로 변화
- (2)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마을 변화 사업을 시행하여 장기적인 청소년 행복마을 구성한 해 동안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위와 같은 효과를 단번에 거두기는 당연히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대로 이미 절반의 효과는 거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대원 공단 앞길에 저희가 심은 꽃과 나무들은 공단 관계자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열심히 주셔서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효과이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꼭지인 재능 나눔 공연은 상대원 공단 개소 이래 역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아래와 같은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목표

- (1) 공단의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변화 쇄신
- (2)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지역자원 연계한 건전한 문화 정착
- (3) 지역 주민 및 공단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 (4) 지속 가능한 재능나눔문화 토대 마련

◆ 운영 : 청소년 공연

처음에는 상대원 공단 내 직장인 밴드와 협업 공연을 하고 싶었으나 참여를 하고자 하는 직장인 밴드가 없어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동아리 및 지역내 시민들의 공연으로 채워졌습

니다. 처음에는 공단에서 하는 첫 공연이어서 보시는 분들도, 하는 우리도 좀 어색하였지만 행사가 1회, 2회 넘어가니 분위기가 풀리고, 그새 공단 안에서 청소년들이 춤추고 노래부르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엔 직장인 밴드와도 함께 공연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참고 사진 4 온통행복한 마을 만들기 청소년 공연(재능나눔공연)

◆ 사전교육

- (1) 안전 및 인성교육
- (2) 청소년 동아리와 근로자 동아리의 자발적인 공연 기획 및 준비

◆ 사후활동

- (1) 지속적인 청소년 공연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이러한 청소년 재능 나눔 공연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1) 공단 내 사업체와 연계하여 정례적이고 장기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2) 장기적인 청소년 행복 마을 구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원으로 시작한 공단 내 사업체와 연계한 정례적이고 장기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은 현재도 준비 중이며 올해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와의 협업으로 장기적인 청소년 행복 마을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참고사진 5. 지역방송인 ABMN 아름방송 기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이는 문화향기
(2018.8.22. <https://www.abn.co.kr/news/newsDetail.do?newseq=93378>)

이와 같이 ‘온통행복한마을만들기’는 2017년에 성남시에서 발간된 성남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중원구내 성남산업단지(상대원공단)의 이미지 제고와 청소년활동지로서 상대원공단 지역 네트워크로의 합류 등을 목표로 시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활동은 크게 청소년기획단구성을 시작으로 마을변화어벤저스단, 사전경제교육, 온통행복한마을 만들기 행사 3회, 꽃길조성, 평가회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진행하며 몇 개의 보완해야 할 점도 생겼습니다. 이 보완할 점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 청소년과 지역 주민 및 상대원 공단 관계자분들의 소리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는 지역연계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말씀해주신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기대해 봅니다.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청소년 기획단 선정 및 운영	중원청소년수련관 내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 대상으로 기획단 선정 및 운영 → 다양한 지역내 청소년 참여 부족	학교, 지역기관을 통한 홍보방안 다양화
마을변화 어벤저스단 구성 및 운영	온통행복한마을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마을변화어벤저스단 구성 및 운영 → 차후 더 다양한 지역기관 참여 필요	다양하고 활발한 지역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 기관 참여 유도 및 협력 필요
사업홍보	각종 언론 미디어, 포스터 부착을 통한 홍보 → 수련관과 행사장 근처에만 포스터 부착	지역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지역 전반적인 장소에 포스터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
청소년 사전경제교육	경제교육강사 초빙하여 청소년 사전경제교육 1회 진행 → 1회 진행으로 기초경제를 이해하기에 역부족	1회를 최소 3차 진행으로 확대
온통 행복한 마을만들기 진행(3회)	공단과 연계를 위해 평일에 행사를 진행함으로 청소년 참여를 위한 학교협조 및 공단 협조 필요 → 학교 및 공단과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 필요	청소년정책연구원, 각 지역 교육청, 학교 등 유기적인 연계로 협조시스템 구축 직장인 밴드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공단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마을 변화 사업 (꽃길 만들기)	벼룩시장 수익금으로 상대원공단 내 꽃길 조성 → 주변 상인 협조 필요	장소 선정 및 꽃길 차 후 관리를 위해 입주자협회 및 각 동 통반장을 통한 주변상인 협조 필요
평가회	마을변화어벤저스단, 청소년기획단 평가회 진행 → 일정 조율에 어려움	선정단계에서부터 평가회 일자 확정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김정현_중원청소년수련관 대학생기획단[베리타스]

안녕하세요. 저는 중원청소년수련관 대학생 기획단 ‘베리타스’ 단원 김정현입니다. 저희 기획단은 짜여진 틀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생 기획단입니다.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난관에 부딪칠 때 청소년지도사 선생님이 서포트 해주시기 때문에, 막힘없이 재밌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베리타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회사원, 그리고 봉사자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서, 누구와’ 하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고민해 본 결과 ‘소원 팔찌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스 체험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체험 시간은 5분 이내로 잡았습니다. 소원팔찌 만들기 부스는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의 체험자가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소원팔찌를 만들어 가져가는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체험자와 자연스럽게 소통을 했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소원을 되짚어보면서 현재의 모습을 되짚어 보는 체험자도 있었으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후련해졌다는 체험자도 있었습니다.

부스 체험을 통해 팔찌 뿐 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실제로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적인 안정을 얻어간 체험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부스를 이용하는 연령층도 다양했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 퇴근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온 회사원, 하교를 하고 축제를 즐기러 온 학생들, 모두 부스를 체험했습니다. 부스 운영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사람이 몰렸을 때 줄을 보고 다른 부스를 체험하러 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스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소원팔찌가 지역주민과 회사원들의 취향을 강타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부스를 운영했던 곳이 빌딩의 중간층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입장이 되었을 때 접근성이 떨어져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회사원들의 입장에서 퇴근하고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위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회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기발한 아이템으로 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이 마음가짐이 확실했을 때 훨씬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스 운영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합니다. ‘체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 왔을까?’ 물론 체험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 순간을 즐기러 온 겁니다. 그럼 저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즐겨야지!’ 즐겁습니다. 웃음이 절로 납니다. 재밌게 부스 운영을 하다보면 체험하는 사람도 재미를 느낍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추억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지역사회 축제를 즐기러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활동은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져다가 줍니다.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생각보다 짜릿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마음껏 소통을 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현재 상황,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전문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재밌기 때문에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특히 베리타스의 활동에 열정적인 서포트 해주시는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재밌게 활동하는 대학생 기획단 ‘베리타스’ 단원들도, 축제를 같이 즐겨주는 지역사회 주민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즐겁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베리타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의 출산부터 시민이 되기까지

— 아동친화도시가 추구하는 길!



홍문기 박사_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원칙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실행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고려하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어떤 관점과방향을 고민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른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성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보는 관점에 따라 역량을 가진 주도적 참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사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의 종속물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율적 사고를 하고 스스로의 선택적 책임에 의해 삶을 형성한다. 성인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권리의 의무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 아동과 청소년, 성인이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질 때 아동친화도시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의 참여이다. 아동·청소년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다보면 처음부터 참여 수준을 쉽게 알 수 없다. 사업마다 특징이 있고 다양한 한계, 즉 시간적 한계, 예산의 한계, 접근성의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늘 고민된다. 진정한 참여란 아동·청소년이 주체자로서 정책입안과정에 관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정책입안 후 기획과 실행까지도 당사자와 함께 진행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참여과정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알게 한다. 참여과정을

통해 주체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세 번째 관점은 설명의 의무이다.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모든 성인은 아동·청소년이 알기 쉽게 설명 할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는 종사자는 더욱 그렇다.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전부 알리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이 궁금해 하는 정책은 알 수 있어야한다. 특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청소년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정책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한다.

첫 번째 원칙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그리고 학교가 함께 공동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달리 ‘거버넌스 구축’이다. 거버넌스 구축은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예컨대 개인, 가족, 공동체, 민간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협력을 통하여 정책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때 거버넌스 실행에 바탕이 되는 것은 참여와 협치이다. 참여는 정책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참여를 핵심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이때 아동·청소년은 단순히 정책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의 공공책임자를 가진 주체로 본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은 민주 의식의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 협치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한다. 아동·청소년과 함께 행정과 민간, 그리고 학교가 공동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아동·청소년은 서비스의 대상자에서 주체자, 공동정책의 생산자로 인식된다.

두 번째 원칙은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바대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때“아동·청소년이 원하는 바대로”의 의미는 그냥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원칙인‘무차별’, ‘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보장’, ‘의견존중’에 근거하여 니즈(needs)를 파악 후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미래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때아동·청소년의 욕구, 즉 원하는 바를 알기 위해 그들과 수시로 소통해야 하며,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참여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아동·청소년에게 주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역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이해하고, 접근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고려한다

세 번째는 아동과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당사자인 부모, 교사,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관련종사자등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과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적절히 운영되는지를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살펴본다.

그렇다면 아동친화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 인가? 앞에서 서술했듯이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원칙은 참여이다. 참여는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있는 마을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을에 놀 공간이 없으면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획하여 만들어나간다.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에서 올해 첫 번째로 마을 놀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마을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아이들의 놀 공간을 함께 고민한다. 권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토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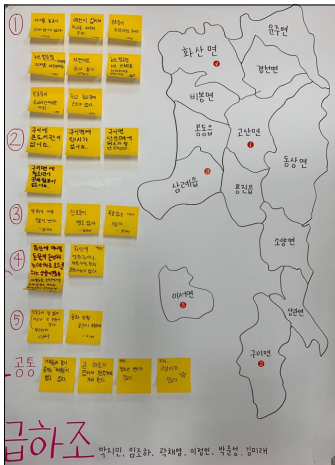
두 번째 방향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가꾸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된다. 최소한이 아니라 적절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완주군은 돌봄, 역량, 건강, 안전, 보호, 기반의 6대영역 18개과제를 선정하여 아동의 출산부터 성장과정 교육과 안전까지 최소한을 넘어 적절한 삶의 질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권리와 행복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한 사람의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것이다. 한 사람의 민주시민이 있다면 그가 속해 있는 마을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 한 아이가 태어나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 일자리를 얻고 마을시민이 되어 그들의 아동과 청소년을 조력하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아동의 출산부터 그들이 시민이 되기까지, 아동친화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아동친화도시 참여정책 : 완주군청소년의회



조하나_고산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완주에서 온 고산고등학교 1학년 조하나입니다.

완주 청소년 의회에서는 워크숍 활동을 통해 우리지역 지도를 그려보고 지역들의 장단점을 찾아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분과 위원회를 나누어 각자 성향에 맞는 정책들을 발표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온 정책 아이디어들을 잘 다듬어 9월중 본회의에서 아동정책 의제 상정 및 의결하는데 완주군 의회 의장님, 완주 군수님, 완주 교육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상정한 정책들은 맞춰진 예산에 따라 실행이 되었습니다. 완주 아동 참여 예산 정책에는 '화장실 낮은 옷걸이 설치' 와 '청소년 공간 조성', '청소년 체육고원 조성', '학교 앞 횡단보도 태양열 차단기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마냥 재밌어 보여 신청했던 완주군 청소년 의회지만 생각보다 우리지역을 더 좋고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주고 직접 논의한 정책들을 잘 반영시켜, 존중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든 완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 자랑스러운 우리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완주를 위해 하는 일들이 재미있고 즐거워서 더 열심히 했던 거 같습니다. '아동 권리 주간 축제'에서 참 많은 완주의 청소년들을 볼 수 있었고 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신 완주 군수님 및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의회 워크숍을 통해 많은 청소년 의원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 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들과 정책들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급네 치킨도 맛있고 조

별 활동을 통해 모르던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완주에서 자란 저는 완주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완주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자신이 사는 곳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일 인거 같습니다.

이상 완주군 청소년 의원 조하나였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천화도시 참여정책 : 완주군청소년의회



송여진_한별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군청소년의회 의원 송여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우리 지역에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완주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청소년 의회에서는 청소년 의원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그 정책이 아동참여예산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아동참여예산으로 배정된 2억 원의 예산으로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완주군 청소년 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거나 완주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모두 의회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의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평소 완주군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하시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포레연사라는 프로그램을 한 뒤로 ‘완주군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조건 참여해야지!’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완주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봤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완주군 청소년 의회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청소년 의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작년 /2018년 청소년 의회에서는 서기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맡아서 활동했습니다.

청소년 의회에 참여하고 저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라 하면 학교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던 저는 의회에 참여하면서 서로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해 나가며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같이한 청소년 의원들께 고마운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정을 속으로 생각했을 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회의장에서 약간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는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청소년 의원 중 한

분인 곽채영 의원님이 ‘의원들끼리 더욱 친해질 수 있게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소중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 2019 완주군 청소년 의회 발대식을 1박 2일간 다녀와서 의원들끼리 더욱 가까워 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발한 분위기의 청소년 의회가 기대됩니다.



2부 공감

/

사회: 홍성미(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팀장)

MEMO

MEMO

MEMO

Lined area for writing the memo.



/

부록

/



공터에는 공룡들이 산다.

마을 속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어떤 이들은 우리센터를 공룡센터냐고 묻는다. 정식 명칭은 노원구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다. 우리센터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변두리 마을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이자 도서관이다. 센터 이름이 너무 길어서 가끔 우울하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매번 다르게 부르면 짜증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공터’라고 줄여서 불러주면 좋겠다.



노원구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외관

‘공터’는 마을의 우물터이자, 느티나무 같은 공간이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둘러앉는 공간이라는 말이다. 어려운 일, 기쁜 일, 힘든 일 함께 나누고 힘을 모으는 마을 공용의 공간 그 자체다. 우리에게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초대장일 뿐이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만남과 관계에 있다. 청소년시설인 ‘공터’에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고, 둘러앉으니 매일 매일 우연한 만남과 새로운 관계가 생겨난다. 관계를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프로그램과 활동이 기획되고, 진행된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둘러앉아 서로 이야기 나누고, 관계 맺는 일은 자칫 너무 쉽고, 하찮아 보이지만 “승고한 관계의 노동”이다.

많은 청소년시설과 지도자들은 전문적 서비스 개발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사실 우리도 그렇기는 하다. 전문가들은 이웃들과 청소년을 대상자, 이용자로 생각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램으로 삶을 변화시켜주겠다는 말을 한다. 힘없는 개인들에게 이 말은 달콤하고, 의지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영역에나 뛰어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전문적 서비스만으로 사람들의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우리의 삶은 총체적이다. 전문가들의 해법은 자칫 단편적이다. 단편적인 접근은 사람을 무기력한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전문성을 쫓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해법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드는 일 역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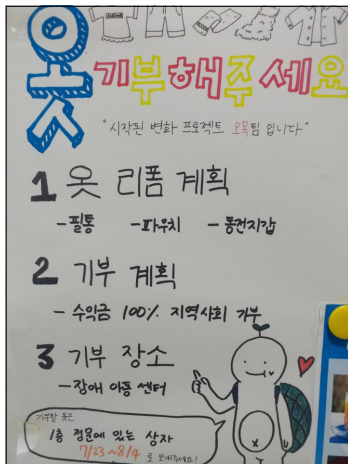
사람은 스스로 할 때 재미있다.

청소년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짜여진 듯이 돌아가는 일을 즐겨워하지 않는다.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고,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미래 역량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 삶의 주인 된 모습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자신은 분명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공룡인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아메바 정로로 생각하며, 부모님과 선생님, 각종 전문가가 자신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공터’에는 자신들이 공룡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다.

“옷 기부해 주세요.”



시작된 변화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포스터(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오늘 아침에 또 포스터 한 장이 붙었다. “옷 기부해주세요.”라는 손 글씨로 만든 포스터다. “시작된 변화”라는 청소년 프로젝트에 참여한 오목팀에서 제작한 포스터다. 버려진 옷감을 필통, 파우치, 동전지갑으로 업 사이클링해서 판매하고, 장애아동센터에 기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렇게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들은 매년 수십개의 동아리로 모이고 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터’에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과 글로 풀어내고, 삶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서로 만나고, 관계 맺는 일을 열심히 주선 한다. 혼자라면 감히 상상도 어려웠을 일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우연히 만들어진단다. 물론 이러한 우발적 활동은 시행착오도 많고, 함께하는 일이라 갈등도 많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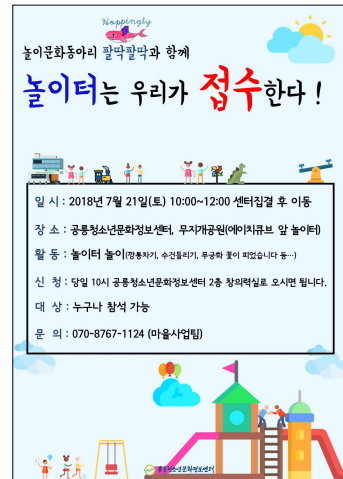
험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한다.

“놀이로 마을을 변화시키겠어요.”

팔딱팔딱이라는 이름의 놀이 동아리 청소년들은 주말에 마을의 친구, 동생들과 함께 모여서 신나게 놀고 있다. “우리가 놀이터를 접수할 거예요. 이곳이 어린이들의 놀이터라는 걸 우리가 모여서 즐겁게 놀면서 보여주면 곧 알아채지 않을까요? 깡통차기, 숨바꼭질 할 동네 어린이들을 모아서 재미있게 놀아 봐야지요.” 이들의 당찬 이야기처럼 조용하던 놀이터와 골목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어느새 가득 찬다.



움직이는 놀이터에 나온 마을 어린이들



놀이문화동아리 팔딱팔딱의 활동 포스터

“내 친구의 덕질이 궁금하니”

공릉동에는 매년 사람책이 발행되고 있다. 벌써 5권 짜다. 주민단체인 든든한 이웃과 청소년기자들이 함께 만들어낸다. 사람책이라고 하니 대단한 사람을 인터뷰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올해는 친들 중에도 덕질을 하는 친구들을 찾아 취재하고, 사람책을 엮어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걸요!”

‘공터’에는 ‘나로 프로젝트’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나로 살아보는 프로젝트다. 학기제로 운영되며, 학기별 13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학교 밖에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학교 안가고 여기 있니?, 커서 뭐할래?, 머리 모양이 이게 뭐야? 그런데 공터에서 나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 수 있었어요.”

나로 프로젝트는 학교 밖에서도 당당한 나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경험해보고 싶은 것을 찾아 마을 속에서 도전해보는 특별한 학습과정이다. 커피를

배우고, 화장을 연습하고,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그림과 음악을 배우고, 그림책을 만들고, 격투기를 배워보는 나만의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나와 이웃을 돌아보는 더불어 활동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활동으로는 작은 공연을 하고, 재능 나눔활동을 하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지난 7월에는 학교 내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응원하는 스쿨미투 문화제에 참가해서 피해학생을 응원하는 공연을 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확실 한 세상이라 두렵기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힘이 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우리 동네 어린이 야구 클럽 모여”

‘공터’가 우리 마을에 자리한지 어언 8년 공터에서 놀다가 동네 형이 된 친구들도 있다. 이 동네 형들은 동네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심판도, 장비도, 장소도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고 동네 선배로서 자신이 줄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다. 동생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동네 야구를 즐기는 어린이 그룹이 공릉동에만 6개나 확인되었다. 요즈음엔 여름철 리그를 만들고,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함께 즐기고 있다.



센터 옆에 있는 태릉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야구하는 청소년들

“우리 모여서 공포영화 볼래?”

‘공터’ 3층 유스카페에 모여서 재미난 상상을 해대는 라온제나(즐거운나)라는 문화기획동아리들의 수다는 매일 매일이 흥미진진하다. “반짝매점을 열어서 돈을 벌어보자! 더운 여름 무더위 타파는 공포영화가 최고야, 영화 보는데 팝콘과 음료수가 빠질 수 없지ㅎ” 포스터를 만들고, 공포 가득한 분위기로 유스카페를 탈바꿈시킨다. 얼마 전 유스카페 리모델링 작업도 직접해냈으니, 이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은 마력이 있다. 소식을 듣고, 어느새 동네 청소년들로 유스카페가 가득 찬다.

이렇게 마을에서 생산자가 되고, 주인 된 공룡들이 ‘공터’에 가득 차 있다.

또 공룡 같은 청소년들의 마을 활동을 응원하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다수의 마을 사람들과 주민조직이 있다. 이들은 꿈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45개 정도의 주민 자치조직이 느슨하게 뭉쳐있는 것이다. ‘공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조직이거나 활동이 미미 했었던 단체 들이 ‘공터’를 통해 만나고, 서로 관계가 살아났다. 이들은 7년 이상을 매월 1회 이상 둘러앉아 청소년이 살만한 마을을 궁리하고, 마을어린이잔치를 만들고, 청소년과 함께 친구로 활동하고 있다.



공룡동 마을에서는 매년 5월 와글와글 잔치와 9월 꿈나르샤 청소년축제가 열린다.



어린이들과 함께 창의적 미술놀이를 진행하는 “교감” 청소년들



빈 땅에 식물을 심는 활동을 진행하는 청소년들 페타이어를 얻어와 대형 화분을 만들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청소년과 주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중요하지만 ‘공터’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도, 대단하지도, 전문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못하다고 말이다.

상당부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 전문가만이 아닌 청소년과 마을 사람들의 힘에 의해 청소년이 살만한 상태로 마을의 공기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공공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조차 혼자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공터’와 같이 공간을 열어서 청소년과 주민들을 초대하고, 이들이 스스로 변화를 일궈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는 작은 실천을 상상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계획에 따라 짜여진 듯이 매달 좋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없을 때가 많다. 하지만 ‘공터’에서 뛰어 노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울퉁불퉁 비정형적이지만 살아있다. 한마디로 공룡 같다.



공터에서 청소년과 만나고 있는 꽃다방 주민활동가들. 센터 1층에는 꽃다방과 든든한 이웃의 든든한보따리 재활용매장이 있다. 꽃다방과 든든한 보따리에서는 청소년과 주민을 환대로 맞아준다.



한 달에 한번 7년째 이어온 마을회의, 매달 30~40여명의 지역 일꾼들과 주민이 함께 둘러앉는다.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청소년 기획단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

인 쇄 2019년 5월 24일

발 행 2019년 5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